

Butadiene, 공급부족 800달러 돌파

FOB Korea 810-830달러로 25달러 상승 ... 공급-수요 가격차 75달러

Butadiene 가격은 4월8일 FOB Korea 톤당 810-830달러로 25달러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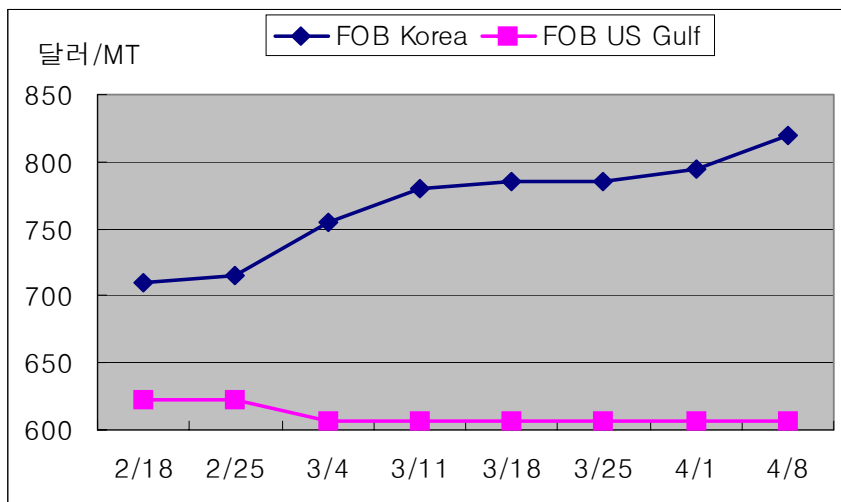
아시아 부타디엔 시장은 한국, 일본, 타이완 및 인디아의 플랜트 정기보수가 잇따르면서 공급부족이 표면화돼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당분간은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 및 유럽의 합성고무 및 ABS 생산기업들이 부타디엔의 계약구매까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시아 가격 상승세를 유도했다. 유럽 및 미국 플랜트의 고장이 잦아 여러 플랜트가 풀가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부타디엔 수요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 공급-구매 사이의 가격차이가 톤당 75달러에 이르고 있다. 인도네시아, 중국, 한국, 타이완의 수요기업들은 CFR 815달러 또는 800달러를 제시한 반면, 무역상들은 890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는 여천NCC가 5월 하순 거래물량 1500톤을 FOB 톤당 850달러에 Spot 시장에 내놓았을 뿐 현물거래가 거의 없었다.

Butadiene 가격추이



한편, 미국의 부타디엔 가격은 4월8일 CIF US Gulf 파운드당 27.00-28.00센트로 톤당 평균 606달러를 형성해 보험세를 나타냈으며, 계약가격은 파운드당 29.00센트를 형성했다.

<화학저널 2004/04/14>